

# 생명의 변혁 지구평화로 가는 이정표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07년 1월 26일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 금지선언' 50주년

핵폐절(核廢絶)을 위해 결연한 행동을!!

제32회 '국제참가학회(SGI)의 날'을 맞아 우리가 직면한 인류사적 제반 과제 중 몇 가지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목시록적 무기에 대한 강한 분노

그런데 올해는 은사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참가학회 제2대 회장이 핵무기를 '절대악'이라고 규정한 역사적인 '원수폭 금지선언'을 세상에 선포한 지 꼭 50년째의 가절을 맞습니다.

돌이켜 보니 반 세기 전인 9월 초순 늦더위 기색도 아직 심한 요코하마 미쓰자와 육상경기장에서 맑게 갠 푸른 하늘 아래, 전국에서 모인 5만 명의 청년들 앞에 선 은사는 '유훈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 선언을 후세에 부탁했습니다.

쇠약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거인 '아틀라스'처럼 만강의 기백이 담긴 은사의 힘찬 목소리의 울림은 어제 일처럼 아직도 귓전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 선언은 시대와 함께 앞으로 더한층 빛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확실히 기념비적인 선언이므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인용해 두고자 합니다.

"핵이나 원자폭탄 실험금지운동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발톱을 뽑아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수폭을 어떤 나라든 승패에 상관없이 사용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의 민중은 생존의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마물(魔物)이고 사탄(Satan)이며 괴물입니다.”

본디 은사는 늘 “사형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형폐지론자인 은사가 왜 ‘사형’이라고 규탄했는가 하면, 그것은 생명 존엄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뿌리째 뽑고 생존의 권리를 위협하는 무리에 대해 불법자(佛法者)의 마음속에서 표출한 분노였습니다.

‘마물’ ‘사탄’ ‘괴물’ 속에 숨어 있는 마성의 ‘발톱’을 뽑아버리겠다는 단호한 결의, 투쟁선언이 ‘사형’이라는 과격한 말로 솟구쳐 나온 것입니다.

강대한 파괴력과 살상력 때문에 인류를 존속시키는 종자와 지구문명의 운명까지도 숨통을 끊을지 모르는 이 묵시록적인 무기의 본질을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초월한 인간의 깊은 생명 차원에서 부각시킨 통찰은, 1955년에 발표된 유명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의 한 구절과 공통성이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인류로서 인류에게 호소한다.— 여러분의 인간성을 마음에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잊어라.”

불법자인 도다 제2대 회장이 왜 ‘원수폭 금지선언’을 했는가. 그것이 왜 장래를 짊어질 청년에게 ‘제일의 유훈’인가.

솔직히 말해 오로지 홍교를 위해 활동하던 당시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놀라움과 동시에 당돌한 느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사명’이라 해도 단독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회적·인간적 사명’에 의해 보완되어야 비로소 완결하는 니치렌(日蓮) 불법의 ‘입정안국(立正安國)’이라는 깊은 정신까지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거기에 이 ‘원수폭 금지선언’의 의의와 선견성이 있는 것이며, 핵무기가 아직도 인류의 생존을 계속 위협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은사가 그 시기에 왜 그러한 포석을 깔았는지 그 중요성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 핵보유국의 군축 노력이 급선무

그 후 우리(창가학회·SGI)는 '원수폭 금지선언' 정신에 따라 착실하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74년에는 은사의 유훈을 계승한 청년들이 원수폭 금지 1천만 명 서명을 달성. 다음 해인 1975년에 내가 직접 그 서명부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또 '핵무기 — 현대 세계의 위협전'(유엔 홍보국, 히로시마·나가사키시 공동주최)을 1982년 유엔 본부를 시작으로 개최해, 1996년에는 내용을 새롭게 꾸며 개최한 '핵무기 — 인류에 대한 위협전'과 맞춰 옛 소련,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24나라 39도시에서 개최.

관람객은 총 1백70만 명을 넘었고, 전시를 통해 핵무기의 두려움과 잔혹함을 호소할 것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평화 특히 핵군축·폐절을 위한 국제여론 형성을 목표로 진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창가학회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시도라고 높이 평가받은 반전(反戰) 출판기획도 청년부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해》(全 80권) 부인부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全 20권-지난해, DVD 완성) 등,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희미해지는 귀중한 전쟁체험을 수기와 증언의 형태로 후세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나도 매년 'SGI의 날' 기념제언을 비롯해 각계 여러 식자와 회견할 때나 대담집(예를 들면 《생명의 세기를 향한 탐구》& L. 폴링 박사), 《20세기 정신의 교훈》& M. 고르바초프 前 소련 대통령), 《지구평화를 위한 탐구》& J. 로트블라트 박사)의 발간 등을 통해 핵무기 폐절, 반전, 평화의 문화 건설을 지향하는 길을 모색하고 대화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는 대 살육시대였던 20세기와 결별한 것은 세계 민중에게 공통하는 진심 어린 원망(願望)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처음부터 현재도 변하지 않고 세계의 지각(知覺)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신의 지하수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이 문제화

그렇지만 핵을 둘러싼 상황은 예측을 불허합니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고 싶을 정도로 우려해야 할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나라뿐 아니라 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일본을 비롯한 주변 모든 나라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유엔 결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계획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중단됐던 '6개국 회담'도 새해가 되어 몇 줄기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으나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핵 의혹 역시 오랜 세월 분쟁이 계속돼 온 지역인 만큼 어떤 핵확산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핵무기가 핵 암시장을 통해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율적인 사태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유감스럽게도 21세기 초두의 현실은 전 세계에 2만7천 개나 되는 핵탄두를 꺼안고 있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북한과 이란에 핵무기개발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균형을 깨뜨립니다. 현재의 핵 상황을 야기한 절반의 책임은 핵보유국에 있기 때문에 핵보유 현상을 용인한 상태로 아무리 불확산을 요구해도 보유국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라는 주장에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핵보유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에 솔선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NPT에는 보유국이 핵군축을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형해화(形骸化)조차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NPT는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고 있지만, 2005년 뉴욕에서 개최된 회의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대립으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나와 대담집을 발간한 로트블라트 박사 등은 "현재의 위기는 35년의 NPT 역사에서 최악입니다"라고 개탄하고, 특히 보유국의 성의 있는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 서명한 사람들 중 유일한 생존자(당시)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핵군축에 투신해 온 분의 경종만큼은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여론에 거역하더라도 강인하게 핵개발을 추진해 그 기성(既成) 사실 위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틈을 주게 됩니다. 보유국의 성실한 자세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핵군축을 위한 흐름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남보다 뛰어나려는 '수라계' 생명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권리를 위협한다**

## 마성의 '발톱'을 뽑아내는 싸움을!

자칫하면 핵확산 쪽으로 방향을 돌릴지도 모르는 흐름을 어떻게 군축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가. 그 '전철기(轉轍機: 선로 분기점에서 차량을 두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장치)'는 역시 인류의 장래를 응시한 발상의 전환일 것입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해방된 원자력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변하게 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 정신적 거인 특유의 예언자 같은 언사(言辭)이고 현실의 대응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조(論調)가 예나 지금이나 있지만,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지에, 조지 솔츠, 윌리엄 페리, 헨리 키신저, 샘 넌이 '핵무기 없는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공동 집필해 게재한 논설기사 중 다음 메시지는 지극히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핵무기는 심대한 위협을 초래함과 동시에 역사적인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견인역(牽引役)으로서 미국의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다.

말하자면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지구적인 차원에서 극복하려는 확실한 합의를 형성해 위험성을 내포한 세력을 위한 핵확산을 방지하고, 최후에는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적인 발상은 이른바 '현실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령 인간의 불신감, 시의심(猜疑心)과 공포감에만 의거한 '억지론'의 수렁에서 쉽게 빠져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확실히 핵군축은 M. 베버가 말하는 "정열과 판단력 두 가지를 구사하면서 단단한 판자에 지그시 힘을 주어 구멍을 뚫는 작업"과 같은 것이겠지만, 그러한 인내심 강한 노력을 계속하는 '도약대'로 되는 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반핵에 대한 신념을 경솔하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기회로 핵논의 금지를 풀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나는 거기에 '억지론'에 빠질지도 모르는 어떤 종류의 위험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북한 핵문제(납치문제도 포함해)는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대화와 압력'이라고 해도 '대화'

노선만으로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난제(難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태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아포리아(난문<難問>, 역주: 해결이 곤란한 문제), 딜레마에 어떻게 대처해서 극복하는가에 따라 인간의 진가가, 평화를 위한 신념이 얼마나 강고한 것인지 추궁 받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양심적인 과학자가 그러했듯이, 그 과정에서 고뇌를 거듭하고 고심하며 최종 선택을 하는 노작업(勞作業) 없이 핵폐절의 길은 찾을 수 없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 소프트 파워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길

나는 2005년의 'SGI의 날' 기념제언에서 '인간주의 행동준칙'이라고도 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기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 상호의존(연기<緣起>)하며 조화와 전일성(全一性)은 물론이고 모순과 대립이라고 해도 하나의 결합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모순과 대립의 내적 제패(制霸)에서 비롯되는 악과 투쟁은 거대한 결합에 이르기까지 피할 수 없으며 피해서는 안 되는 형극(荊棘, 시련: 사태가 분류하는 모습)이다”라고.

이 글 중에 '결합'이라는 말이 반복합니다. 즉 인간은 인종, 민족, 국경을 초월해 인류의 일원이라는 일 점으로 결합돼 있다는 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렇지만 모순과 대립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악을 증장시켜 예기치 않은 파멸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악과 투쟁은 거대한 결합에 이를 때까지 피할 수 없으며 피해서는 안 되는 형극'입니다. 이 이상의 핵확산을 어떻게 하든지 저지한다는 과제도 세계 평화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피해서는 안 되는' 과제이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핵확산 억제기능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순, 대립의 내적인 제패'에서 비롯되는 인류의식에 입각한 악과 투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 드린 '전철기'에 해당합니다.

이 '전철기'가 정확히 작용해야만 '대화과 압력'의 때에 따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효과적인 제동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류의식이라는 '결합'이 강해질수록 '압력'이라는 하드 파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대화'라는 소프트 파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도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이라크 전쟁의 경우 등은, 이 중점을 두는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나와 대담집을 발간한 '미국의 양심' 노먼 커즌스 씨는 "단지 미국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교육이 크게 실패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류의식이 아니라 부족(部族)의식을 지니게 한 점이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만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장도 "우리 인류가 얼마나 다양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가. (중략) 인종, 민족, 종교 그리고 피부색을 초월해 '인간의 일체감'을 이해할 수 있으면 평화는 실현할 수 있다"라고 힘차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트블라트 박사도 나와 나는 대담에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지구 규모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방법과 '인류를 위한 충성심'을 지닐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면서, 박사는 그 확신과 투철한 낙관주의자로서 '미완(未完)의 회답'을 남기고 서거하셨습니다.

'인류의식' '인간의 일체감' '인류를 위한 충성심' — 이러한 '전철기'가 정상적으로 기능만 잘 하면 '형극'이 아무리 괴롭고 감당하기 어려운 듯이 생각되는 일이라도 포기하거나 황급히 힘을 이용하는 대항수단에 따르는 등 충동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리가 없습니다.

베버가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가처럼 가능한 수단을 구사하고, 대화에 의한 설득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 잔혹한 무기 사용의 근저에 있는 것

그 '인류의식' '인간의 일체감'을 분단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감과 시의심을 들게 만들어 서로 반목하고 싸우도록 작용하는 것이 '마물' '사탄' '괴물'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발톱'입니다.

한 순간에 무려 수백만 혹은 수천만의 희생자를 낼지도 모르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성에 홀려 생명의 존엄성 등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최악의 병 증세의 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발톱', 즉 생명의 마성을 낳는 근원악(根源惡)은 불법상에서 말하면 탐(貪), 진(瞋), 치(癡)라는

‘삼독(三毒)<sup>1</sup>’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성이 타자(他者)에게 향하는 예가 수라계의 생명이라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법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경애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 수라(修羅), 인(人), 천(天),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 불계(佛界)라는 열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그 중 낮은 쪽에서 네 번째가 수라계로서 불전(佛典)에 “순간순간에 언제나 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남에게 뒤지는 것을 못 참으며, 남을 경시하고 자신을 소중히 한다”(천태대사 <마하지관>)라고 있는 것처럼, 늘 자신과 상대를 비교해 남보다 뛰어나려는 ‘승타(勝他)’의 염(念)에 집착하고 마음이 왜곡돼 있어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걸핏하면 다투고 싸우는 생명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종류의 생명이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유혈참사가 발생합니다. 소위 ‘수라투쟁의 장소’ 출현입니다.

또 불전에는 수라의 추한 모습을 “수라는 키가 팔만사천유순(八萬四千由旬) 사대해(四大海) 물도 무릎에 미치지 못한다”(니치칸 상인 <삼중비전초>)라고 했습니다.

‘팔만사천’ ‘유순’이란 모두 고대 인도에서 수와 거리를 재는 방법으로 여러 설이 있는데, 요컨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거대한 것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수라계의 생명에 점거당하고 잘난 체하면 사대해 물도 무릎밖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증장(增長)하고 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현저하게 증장한 모습, 잘난 체하는 모습을 보면, ‘타자’(그것이 인간이든, 문화의 산물이든, 자연이든)의 존재는 그것에 반비례하듯이 상대적으로 한없이 왜소화돼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마음이 빠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물의 올바른 모습과 가치를 판단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

### <sup>1</sup> 삼독(三毒)

불법에서 설하는 세 가지 번뇌를 말함. 탐(貪)은 ‘도(度)를 넘은 강한 욕망’을, 진(瞋)은 ‘심한 분노와 미움’을, 치(癡)는 ‘생명의 법리에 어두운 것’을 가리킨다. 불법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탁함이 인간에게 괴로움과 불행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의 혼란, 전란의 빈발, 악성 전염병의 유행 등 사회에 재앙을 낳는 원인이 된다고 설한다.



수단, 도구라면 때와 사정에 따라서는 타자들을 살상하고 훼손해도 수라는 그다지 아픔과 가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핵무기에 한하지 않고 베트남전쟁 무렵 네이팜폭탄과 요즈음의 열화 우라늄탄, 클러스터(산탄)폭탄과 같은 잔혹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게 하는 사람의 생각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초래할 지옥그림 등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악마의 '발톱'을 드러낸 그에게 인명(人命) 등은 쓰레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라'의 날뽀는 인간의 존엄을 걸고서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히로시마의 원폭투하 뉴스를 들었을 때 "아,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비통하게 절규했다는 것은 유명하고, 로트 블라트 박사도 "그때 내 마음에 자리잡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은 물론 많은 과학자가 신형무기 '성공'을 위한 정신 고양(高揚)에 들끓고 있던 무렵, 진정한 대과학자의 양심은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사(도다 제2대 회장)가 생명 차원에서 한 고발(告發)과 함께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 불법에서 설하는 십계본유의 생명관

물론, 수라계 생명은 모든 인간의 생명에 본디 갖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십계를 언급했는데, 수라계를 비롯해 본래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십계본유(十界本有)<sup>2</sup>라고 설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성훈에 "진에는 선악에 통하는 것이니라"(어서 584쪽)고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 분노는 '본유의 수라'이고 악과 싸움에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수라라면 좋은 것이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가령 수라계가 십계본유의 위치에서 분리된

---

<sup>2</sup> 십계본유(十界本有)

깨달음의 경계인 불계(佛界)와 범부의 생명상태를 의미하는 아홉 가지 미혹의 경계인 구계(九界)가 본디 모두 갖춰져 있다고 설한 불법 용어. 법화경에서는 십계 각각이 고정적으로 각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 하나의 생명에 갖춰진 것이라고 밝히고 지옥 같은 괴로운 생명과 수라에서 보는 남보다 뛰어나려는 생명 등도 스스로 통제하고 변혁할 수 있다는 법리를 나타냈다.

것같이 제 세상인 양 활개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라는 조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법자로 바뀌어 마성의 '발톱'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악마의 '발톱'을 뽑아내는 우리의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를 갈라서 분단시키려고 자기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마구 날뛰는 이 무법자를 본유의 질서, 조화의 세계로 되돌려 바르게 위치를 부여하고 재구성하는 착실한 노작업(勞作業)입니다.

여기에 '발톱'을 뽑는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 자본주의 사회 구조 — 어떤 의미에서는 핵무기 같은 못된 아이를 낳는 필연성을 내포한 독특한 구조하에서 '발톱'을 뽑는 작업도 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문화활동뿐 아니라, 아무리 멀리 도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부지런히 거듭하는 생명변혁을 통한 인간혁명 운동은 '발톱'을 뽑는다는 차원에서 핵군축·폐절이라는 인류사적 테마와 이어져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근대문명의 특징을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수라계라는 무법자는 인간에게 본디 갖춰져 있어서 어떤 시대라도 틈만 있으면 함부로 날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사회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문명과 자본주의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는 특유의 '시대상'을 지니고 있으며, 십계의 생명도 각각 독특한 뉘앙스를 띠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타자(他者)' 부재의 양상이 깊어지는 사회

앞에서 수라가 등장하는데 반비례해 '타자'가 왜소화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 현대사회(특히 선진국)에서는 '타자'의 희박화 혹은 부재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대경제학의 창시자이고 뛰어난 문명비평적 센스의 소유자이기도 한 J. M. 케인스에게 《우리 손자들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1930년에 발표된 강연원고로서, 당시 세계 경제가 한창 불황인 때 두 가지 비관론 — 사태의 악화를 막는 데에는 폭력혁명밖에 없다는 비관론과 사태는 자신들의 의도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인 대응을 할 이유가 없다는 무력감에서 오는 비관론 — 을 반박한 것으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실업 극복과 경제성장은 가능하고, “중대한 전쟁과 현저한 인구 증가가 없다고 가정하면, 경제문제는 1백 년 이내에 해결되든지 혹은 적어도 해결 전망이 설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인구 증가는 케인스가 예측한 범위에 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선진국에 관한 그의 예측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수요에는 삶을 영위하는 데 불가결한 ‘절대적’인 수요와 ‘동료들 위에 서서 우월감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느낀다는 의미의 상대적’인 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스스로 한계가 있지만, 후자는 그 본질상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에 홀린 사람은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욕망을 비대화하고 계속 추종해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틀림없이 ‘승타’라는 수라의 속성과 일치합니다.

‘절대적’인 수요의 확보는 필요합니다. 특히 빈곤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보이고 있는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식(衣食)이 충분해야’ 반드시 ‘예절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의식’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익힌 관습과 도덕에 익숙해져 있고, ‘의식이 충분한’ 후에 대한 대응에는 오히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향락인’의 횡행도 눈에 띕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산되는 ‘화폐애’

그런 당황함과 불안함을 틈타 이용하듯 얼굴을 내비치는 것이 인간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숙명적인 존재가 되는 ‘화폐’입니다.

‘절대적’인 수요 측면에서 화폐는 나날의 양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상대적’인 수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폐는 ‘재산’, 크게 말하면 ‘자본’으로서 자기 목적 화해 끊임없는 자기증식

을 숙명적으로 부여 받습니다.

그 자기증식운동에 휘말린 인간에게 “— 인생의 향수와 현실을 위한 수단으로서 느끼는 화폐애(貨幣愛)와 구별된 — 재산으로서 느끼는 화폐애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다소 화가 난 병적인 것으로서(중략) 받은 범죄적이고 받은 병리적인 성벽(性癖) 중 하나로 보일 것이다”라고 케인스는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화폐애에 사로잡힌 상태를 다른 측면에서는 마르크스가 ‘물신숭배(物神崇拜)<sup>3</sup>’로 보며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을 덧붙인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케인스가 말한 ‘손자들’ 시대인 오늘, 화폐애라는 금전적 가치의 독선적 행위는 어떤가. 모든 사회적 가치, 생활가치에 따라 방약무인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명백할 것입니다.

이름난 대기업에 속출하는 불상사, 보험금 사기, 작금의 관제(官製)담합, 청소년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 머니 게임의 풍조 등,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대부분이 돈에 얽힌 것입니다.

불법에서 설하는 수라계 혹은 그것에 인접한 아귀계(심한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 생명이 여기서도 ‘키가 팔만사천유순’까지 증장해 버렸습니다.

몹시 창궐하는 그 모습은 케인스가 ‘받은 범죄적이고 받은 병리적인 성벽’이라고 말한, 약간 과장한 듯한 발언조차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남에게 뒤지는 것을 못 참으며”라는 수라계의 주인은 ‘만족할 줄 아는’ 안전 지점과 인연이 없는 중생이자, 터전이 결여된 인간은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쫓기듯 화폐애를 계속 추구하며 만족할 줄 모릅니다.

가치관의 다양화라는 말이 나온 가운데, 실은 금전적 가치에 대한 일원화가 진행되고 사회적 가치나 생활 가치는 도처에서 침윤(浸潤)을 당해 질서감각의 깊은 차원에서 일종의 뿌리가 썩는 현상이 진행된 것은 아닐까. ‘시대상’으로서 모럴 해저드(도덕 붕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받

---

<sup>3</sup> 물신숭배(物神崇拜)

상품·화폐·자본이라는 ‘물건’을 마치 고유의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는 것. 마르크스 ‘자본론’에서 유래한 말로서, ‘물건’이 혼자 걸음을 시작해 반대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도적(轉倒的) 현상을 가리킨다. 상품경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돼 있다.

는 까닭입니다.

지난해 '품격'이라는 말이 유행어 대상(大賞)을 받은 것도 품격 없는 추악한 시대상에 대한 반증, 반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폐애를 경계한다고 해도 인간에게 교환관계의 매체가 되는 화폐를 사회에서 추방하지 못함은 역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억누르려 하면 혹독한 보복을 당합니다.

20세기 사회주의 실험이 한결같이 실패로 끝난 일은 기억에 새롭습니다.

또 금전적 가치를 위계질서(位階秩序)의 하위(下位: 일본 에도시대의 '사농공상<士農工商>'처럼)에 두었던 근대 이전의 공동체적 사회로 회귀하는 것도 '자유'라는 근대적 가치를 이만큼 알게 된 이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과 친화(親和)하고 이를 길들이는 방법 이외에 없습니다.

'화폐'나 '자본'을 '물신(物神)'이라고 숭상하지 않고 그들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길러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수라계, 아귀계를 십계본유의 구조 속에 바르게 위치를 부여하듯이 인간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치의 위계질서 속에 금전적, 경제적 가치를 다시 본연의 위치에 얹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언에서 "내가 고양이와 장난치고 있을 때, 어쩌면 고양이가 나를 상대로 노는 것인지"라는 몽테뉴의 말을 언급했는데, '화폐'나 '자본'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서 오히려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가 하는 이런 반문이 급선무입니다. 그 점에 '인간력' 회복의 길도 열릴 것이 분명합니다.

핵 포화상황을 직접 본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인간이 만들어 낸 이상, 인간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호소를 정치가 특유의 수사법(修辭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기술-과학적 질서'의 경사(傾斜)로 '인간력'을 통한 억제

#### 네 가지 질서의 혼동이 초래하는 사회 혼란

그 점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지난해 가을 <세이쿄(聖敎)신문> 서평란에도 언급된, 프랑스 기예(技

藝)의 철학자 앙드레 콩트-스푹빌 씨가 쓴 '자본주의에 덕(德)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표제는 물론 반어(反語)며 자본주의는 결국 도덕과 인연이 없어 거기서 유덕(有德)을 찾는 것은, 나무에 의지하며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같다고 합니다. 매정하게 뿌리치는 듯한 말 같으나 알맹이는 경청할 만합니다.

스푹빌 씨는 인간사회를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질서로 구별합니다.

제1은 '경제-기술-과학적 질서'로, 그 구동력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라는 대립축입니다.

제2는 '법-정치적 질서'로 '합법과 위법'이라는 대립축, 제3은 '도덕의 질서'로 '선과 악, 의무와 금지'라는 대립축, 제4는 '사랑의 질서'로 대립축은 '기쁨과 슬픔'이라고 분석합니다.

신앙이 있다면 그 위에 '성스러운 질서'를 상정할 것 같은데 당분간 자신에게는 인연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구별'이지 '분리'가 아니며, 저마다 서로 겹쳐져 있어 우리는 네 가지 질서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질서가 잡히는지 중요하며 그곳을 혼동하는 데서 사회질서 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명확하게 제1과 제3 질서를 혼동해 경제를 도덕화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19세기의 아름다운 마르크스주의적 유토피아에서 20세기의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전체주의 두려움으로 이행(移行)'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도덕화하려 해도 이치에 어긋날 뿐, 자본의 폭주를 억제하는 힘은 '밖 <外>'(별개의 질서)에서 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그 자체는 '대립축'에 사로잡혀 '가능'한 것을 추구하며 어디까지나 이윤을 계속해서 좇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폐가치의 앞에서는 고용확보나 후생복리와 같은 생활가치는 이의적(二義的)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경제-기술-과학적 질서'에 매혹된 핵테크놀로지스트는, '가능'할 경우 악마적 무기의 파괴력과 살상력 강화에만 신경을 써서 그것이 초래할 참상에 대한 상상력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스트는, '가능'할 경우 인간의 조건을 그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복제인간 등, 생식계열 유전자조작에까지 손을 대는 일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인, 과학자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질서를 동시에 살고 있으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사실 경제계나 과학계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능-불가능'을 대립축으로 삼는 한, '인간'을 내버려 두고 거기까지 가 버릴 필연성을 내장하고 있어 실제로 그것이, 기우가 아닌 징조가 도처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현실을 누구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만사천유순'까지 증장, 비대화한 에고이즘의 세계에서 '타자(他者)'는 한없이 희박화, 부재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면, '타자'가 없으면 '자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철두철미 '인간'이 부재합니다.

그런 사회의 답답함을 피해 신흥종교 등에 구원을 바라는 젊은이들에게 대체로 이인증(離人症, 역주: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외부 세계를 실재하지 않는 허구로 느끼는 상태)과 같은 경향이 보인다. 이는 몇몇 조사결과도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 현대문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현대문명은 실로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기술-과학적 질서'는,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인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술을 지닌 비열한 자'의 횡행을 '안<內>'에서 억누르는 힘이 없습니다.

'밖'에서 주로 제2의 '법-정치적 질서' 측면에서 규제하는 방법 이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2의 질서도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이라는 교활한 '합법적인 비열한 자'를 제압하는 힘이 없고 이 경우도 '밖'에서 주로 제3의 '도덕의 질서' 측면에서 규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3의 질서도 말만 잘하는 위선자, 독선가 즉 '도덕적인 비열한 자'의 존재를 부득이 허용해 버리는 체질이 있습니다.

역시 그렇다고는 해도 도덕은 '밖'에서 가하는 규제에는 본질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이른바 위에서부터 여는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서 제4의 '사랑의 질서'가 요청됩니다.

그러나 같은 덕목을 추구하는 데에도 '도덕의 질서'가 외발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데 치우치는 경향인데 비해, '사랑의 질서'는 어디까지나 내발적인 기쁨, 충족감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더듬어 보면, 예를 들어 "종교는 정치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람은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간디의 말도 깊이 수궁이 갑니다.

이상이 내가 논평을 곁들인 '자본주의에 덕은 있는가'의 요지인데, 확실히 금융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현상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이라는 중립적이고 무기질적인 대립축을 구동력으로 삼는다는, 냉엄하고 또 아주 노골적인 사실 분석 등을 수궁하게 되는 점이 많습니다.

### 건전한 사회로 변혁하는 기반은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혁명' 속에

특히 설득력을 느끼는 것은 제1에 그러한 분류가 우리의 인간주의적 어프로치에 즈음하여 지극히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앞서 '인간주의 행동준칙'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강조한 '결합'에 따른 인류의식의 고양은 명확히 스폰빌 씨가 말한 제3, 제4의 질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의 '형극'인 악과 싸우는 곳에서 그대로 통용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술을 지닌 비열한 자'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대화와 설득을 하기보다 '법-정치적 질서' 측면에서 규제하는 편이 훨씬 더(적어도 짧은 거리에서 보면) 효과를 본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핵상황에서 인간의 삶의 자세'를 둘러싼 심포지엄에서, 핵상황에서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논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양심, 개인의 자각도 그럴 만하지만, 현대에서는 역시 국가로서 정책 전환을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윤리 문제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절박한 과제"라는 식자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류의식이라는 보편적 덕목은 제1에서 말한 질서에 대한 직접개입보다 제2의 질서를, 아래서 떠받치는 것으로 기능할 때 그 본분과 효과를 최고로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제2에 내가 주목한 것은, 인간다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



며 그러한 인간 중시의 자세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제1의 질서에서 제4의 질서로 흘러가는 것을 '우월의 상승적 서열'로 삼고 있지만, '상승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을 지니는 것은 개개인뿐'이라고 말하고, 상승을 담당하는 파이어니어(개척자)의 역할을 '한 인간'에게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각성 없이 '우월의 상승적 서열'은 있을 수 없고 그 상승과정을 통해 '인간'은 점차 무게를 더해갑니다. 얽은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그 과정이란 '경제-기술-과학적 질서'의 '인간'부재에서 서서히 '인간'을 복권하고 현재화(顯在化)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 퍼스널 종교에 바라는 기대

각 인간의 자질 향상 없이 사회 변혁도 없지만 더 좋은 질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C. 용이 "개인이 덕성 면에서 이론 미미한 일보(一步) 전진만이 진정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모든 것인데도 그것을 체현하는 대신에 전체주의의 데몬(Demon)을 불러내고 만다"라고 경고한 것처럼, 조직에 의존하고 집단 속에 매몰되는 것은 인류가 정말 자주 빠져든 함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의 계보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 부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데몬이나 사탄이 드러낸 '발톱'의 희생물이 되기 쉽습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 사회, 대중화 사회는 악마에게 홀린 선동가들이 암약하는 데 걸맞은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미미한 일보'란,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용이 말했듯이 그것을 빠뜨리면 어떠한 변혁의 시도도 사상누각이 된다는 의미로 모든 운동의 원점이자 '화룡점정(畫龍點睛)'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과제인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룩고 한 나라의 숙명전환도 성취하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전환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과도 서로 깊숙이 회로가 통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본 철학계의 중진인 고(故) 다나카 미치타로 씨는 '퍼스널 종교에 대한 기대'로서 퍼스널 종교인 고등종교도 거대해짐에 따라 사회종교적인 것으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창가학회의 운동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인간혁명》의 저자 이케다 다이사쿠 씨가 고등종교라는 불교의 입장에서 그 퍼스널면을 더욱 새롭게 전진케 하는 시도를 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성공을 기원하는 바이다”(〈세이쿄신문〉 1977년 5월 1일자)라고.

퍼스널(개인적)인 ‘한 사람의 인간’에게 철저히 초점을 맞추는 일, 바로 여기에 우리 운동의 원점이 있습니다. 알파(시작)이자 오메가(마지막)입니다. 거기서부터 조금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기에 비로소 창가학회·SGI는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오든 이러한 근본 궤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본보기로 하여”(어서 564쪽)라고 언명(言明)하신 종조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에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제-기술-과학적 질서’의 역학이 공전(空前)의 기세로 석권하는 가운데 ‘우월의 상승적 서열’이라는 인간회복, 인간부흥으로 가는 길을 숨을 헐떡이며 오르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문명론적 과제에 우리의 운동이 어떻게 호응하며 공헌해 갈 수 있는지 저절로 명백해 집니다.

“깊이 숨어 있는 발톱을 뽑아내고 싶다”라는 은사의 ‘선언’은 그러한 오늘날의 과제까지 비취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향후도 그러한 긍지와 확신으로 우리의 길을, 평화로 가는 왕도를 매진하고자 합니다.

### **‘국제핵군축기구’를 창설해 ‘핵에 의존하는 안전보장’에서 탈피**

#### **피폭국민 일본이 리더십을!**

이어서 수라의 생명에 보이는 ‘승타’의 정신이 만들어 내는 현대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책에 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핵관련 기술의 암시장 실태가 명확해진 가운데 핵테러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 또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국제사회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새로운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매우 단기간에 20~30 나라가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추게 된다”(지난해 10월, 빈에서 열린 핵문제에 관한 심포지엄)라며

잠재적인 핵보유국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제동을 걸지 않고 이대로 두면 NPT의 약체화에 박차를 가해 핵을 둘러싸고 혼미를 거듭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가 공통 목표를 찾아내 함께 책무를 완수하는 체제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백89나라가 가맹한,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군비관리조약인 NPT를 어디까지나 기반으로 하여 정한 그 의무를 새로운 개념에 의거해 재구성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NPT 전문에는 “핵전쟁이 전 인류에게 참혹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인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필요”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정신에 입각해 핵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을 확립해 생화학무기 금지조약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성립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공통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보유국이 몰두해야 할 핵군축도, 비보유국의 협력을 빼놓을 수 없는 핵비확산체제 강화도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으로 향하는 ‘공통 책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핵문제를 토의하는 ‘세계 서밋’을

그런 의미에서 한스 블릭스 씨(前 IAEA 사무총장)가 위원장을 맡은 ‘대량살상무기위원회(WMDC. 통칭:블릭스위원회)’<sup>4</sup>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공포의 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 <sup>4</sup> 대량살상무기위원회(WMDC)

다나파라 유엔사무차장(당시)의 제안으로 스웨덴 정부가 지원해 2003년 12월에 블릭스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성한 독립위원회. 미국 페리 前 국방장관을 비롯해 세계 군축·비확산문제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3월까지 10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성과를 보고서 <공포의 무기>로 정리해 발표했다.

그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다른 국가도 보유하고 싶어 하는 법이다. 핵무기가 있는 한,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언젠가 사용될 위험성이 늘 따라붙는다. 그리고 일단 핵무기가 사용되면 그것은 파멸을 의미한다” “대량살상무기위원회는 ‘어느 한 국가가 보유하는 핵무기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다른 국가가 보유하면 세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불신과 공포에 따른 억지론적 사고를 거부한다는 주장은, 핵무기 사용을 절대악으로 단정한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 금지선언’을 일관하는 사상과 상통합니다.

물론, 북한이나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는 개별적이면서 조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나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을 지구적 규모로 실현하는 출발선이 될 토의의 장(場), 예를 들면 ‘세계 서밋’이나 ‘유엔 특별총회’를 조기에 열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 모임에서는 우선, NPT의 세 기둥인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해 각각 국제적인 구성을 강화하고 각국이 ‘공동 책무’를 완수하기로 서약하는 선언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따라 NPT의 전문에 명시된 “핵무기 제조를 중지하고 저장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며 아울러 여러 나라의 군비에서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제거한다”라는 최종 목표, 다시 말해 ‘핵무기 폐절과 비합법화’를 지향해 진지한 노력을 거듭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으로 이행(移行)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몇 가지 제기해 두고 싶습니다.

첫째는 핵군축을 위한 명확한 조리(條理)를 세우는 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쌍방의 전략핵탄두를 2012년 말까지 1천7백 개부터 2천2백 개 정도까지 삭감시키는 ‘모스크바조약’(전략공격무기삭감조약)이 조인됐지만, 폐기까지는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양국이 전략핵탄두를 수백 개 정도까지 삭감하고 완전히 폐기하기로 방향 짓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 핵군축의 흐름을 선도하도록 나는 강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핵군축의 이행(履行)을 정한 NPT 제6조에 따라 모든 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핵군축 조약' 성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2009년 말까지 '제1차 전략무기삭감조약(STA-RT 1)'이 효력을 잃은 후의 사찰검증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핵무기 시스템이 2020년대 중반에 수명이 다 되는 점을 감안해 그 갱신문제가 지난해 초점이 됐는데, 다른 보유국을 포함해 핵무기 갱신이나 신규개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군축의 길로 적극적으로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핵군축조약'의 교섭을 조정하고 발효 후에는 이행 확보에 힘쓰는 기관으로서, 사찰기능이 있는 '국제핵군축기구'를 유엔에 창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은 핵군축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비정부기구(NGO) 사이에서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6조 포럼'<sup>5</sup>이라고 불리며 NPT 제6조 핵군축 의무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을 논의해 핵무기가 없는 세계에 필요한 법적, 정치적, 기술적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세계 민중의 행동 10개년' 제정을!

이러한 동향을 후원하는 의미에서도, 내가 지난해 유엔제언에서 제창한 '핵폐절을 향한 세계 민중의 행동 10개년' 제정을 재차 호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라는 참극을 겪은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은 핵군축과 핵폐절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선두에 서서 이 10년 제정을 강하게 호소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염원합니다.

이 점에서 앞서 언급한 블릭스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대량파괴무기는 정부나 국제기관만의 과제가

---

<sup>5</sup> 제6조 포럼

NPT재검토회의 결렬이라는 사태에 국제 NGO 중견국가구상(MPI)의 더글러스 로우치 의장이 핵폐절을 향한 길을 모색하는 시도로 2005년 8월에 제창한 구상. 제1회 포럼은 같은 해 10월 28 나라 정부대표가 참가해 유엔 본부에서 개최. 지난해 9월에는 캐나다에서 제3회 포럼이 열렸다.

아니다. 연구자, NGO, 시민사회, 기업, 미디어 그리고 일반인도 주체자로서 임해야 할 과제"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 주역이 바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SGI도 여러 유엔 기관을 비롯해 다른 NGO와 연계해 '군축교육'을 추진함과 아울러 청년의 열과 힘으로 '핵폐절을 바라는 민중의 네트워크'를 더욱 크고 강력하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내가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올해 9월,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 금지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핵폐절을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 성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유엔과 각국 정부 등에 배포하고,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를 환기하고자 염원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핵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CTBT 조기 발효가 바람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1996년 채택한 CTBT는 미국 등 발효 요건을 갖춘 국가의 비준을 얻지 못해 10년 이상 발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CTBT의 현실성을 비관시하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 CTBT의 정신이 일종의 억지력(抑止力)으로 작용해 핵실험을 자숙하게 만든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5 핵보유국 모두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일시정지)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더해 인도와 파키스탄도 이 같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핵실험은 1998년 이후 지난해 10월에 북한이 실시하기까지 8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발효가 난국에 당면했을지라도 비준하는 국가가 일정 수에 달한 단계에서 잠정발효라는 형식을 취하는 등, CTBT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도적인 면에서 또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점은 NPT의 기둥인 '원자력 평화이용'을 핵무기 개발로 전용(轉用)하지 못하게 만드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IAEA 연차총회에 맞춰 빈에서 특별회합이 열려 원자력발전용 핵연료 공급 보장을 위한 다국간 협력의 기본 방향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IAEA에서는 향후 제도의 구상수립에 착수해 이사회 채택을 거쳐야 하지만, 각국이 이해득실을 초월해 '핵개발 능력 확산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 확립을 향해 합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염원하는 바입니다.

### 유엔지원으로 '비핵지대' 확대

또 이와 더불어 서밋(주요국가정상회의) 등의 무대에서 핵보유국의 '핵무기 선제(先制)사용 불가'와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도화하는 토의를 하도록 강력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핵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나라를 더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발상을 비롯해 국제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소극적 안전보장'의 제도화는 비핵지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나라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지역 내의 핵무기 개발과 생산 및 소지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남극조약을 포함해 중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이은 세계 여섯 번째 비핵지대조약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조약이 유엔의 지원을 얻어 성립한 점입니다. 앞으로 이 실적을 바탕으로 당사국만으로는 난항에 빠지기 쉬운 조약교섭을, 다른 지역에서도 유엔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보유를 '외교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풍조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의 본연적인 자세를 함께 모색하고 구축하려는 노력입니다.

일단 핵개발을 추진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일지라도, 그 상황이 반드시 반영구적으로 고정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처럼 '맨해튼 계획'에 참가하면서 굳이 비핵의 길을 선택한 나라도 있으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핵개발 계획을 철회하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핵무기를 폐기하고 나서 비보유국이 된 나라도 있습니다.

또 옛 소련의 붕괴로 일시적으로는 핵무기를 계승하면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계국의 안전 보장과 경제지원을 얻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기에 이른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처하는데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나는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지역 전체의 비핵화, 즉 최종적으로는 '동북아시아 비핵화'와 '중동 비핵화'를 실현하는 이외에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더라도 국제환경의 변화와 정책의 전환으로 핵개발을 재개할 위험성을 없애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우주의 비군사화' 위해 규제를 강화

다음으로 핵문제에 관련해 내가 21세기 지구평화라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접근해야 할 테마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의 철저한 비군사화(非軍事化)'입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우주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는 달을 비롯한 천체의 군사적 이용이 일체 금지돼 있으나, 그 외 우주공간의 제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군사기술 발전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규제범위를 확대, 강화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주조약' 발효 40주년이기도 하므로, 재검토를 비롯해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할 절호의 기회인 듯합니다.

앞서 언급한 블릭스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우주에 무기배치금지를 비롯해 우주조약의 보편적 준수, 조약의 적용범위 확대, 우주무기의 실험금지 등을 검토과제로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엔사무총장 주도로 '우주 비군사화에 관한 현인(賢人)회의'를 발족해 구체적인 대책을 종합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환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떤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축과 관련된 문제로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각지의 분쟁과 내전에서 실제로 사용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사실상의 대량살상무기'라고 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 통상무기의 국제적



이전(移轉)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약 6억4천만이나 되는 소형무기와 경무기(輕武器)가 존재하며, 날마다 8백만 개 이상의 무기가 제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기 확산이 각지에서 인권침해와 분쟁격화를 조장하며, 하루 1천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갑니다.

이 규제를 호소하는 '무기통제 캠페인'<sup>6</sup>을 NGO 요청으로 2003년 10월에 시작해 각국 정부의 지지를 확대하는 사이에 드디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무기무역조약' 형성을 향해 논의를 개시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무기무역조약'은 무기의 부정한 사용으로 이어지는 국제적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소형무기뿐 아니라 중무기도 포함한 통상무기 전반의 이전을 규제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의한 결과는 ① 유엔사무총장이 '무기무역조약'에 관한 각국의 견해를 구해 올해 안에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2008년에 정부 간 전문가그룹을 설치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는 2단계 과정을 거쳐 조약을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도 13년 전부터 '부전(不戰) 제도화'의 일환으로 무기 유출을 규제하는 국제적인 구조를 강화하도록 거듭 호소했으며, 그 조기체결을 강력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 조약이 성립하면,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에 이어 NGO가 주도적 역할을 완수한 군축조약을 실현하게 됩니다. 군축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교섭을 진전시키는 데도 반드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 군국주의와 대치한 속에서 신념 관철

이상 핵무기를 중심으로 군축문제를 논해 보았습니다.

---

<sup>6</sup> 무기통제 캠페인(Control Arms)

옥스팜, 국제사면위원회(AI), 소형무기 국제행동네트워크(IANSA)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통상무기 국제 이전의 규제를 추구하는 운동. 세계 1백50나라 이상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찬동을 얻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1백16나라가 결의를 공동제안. 2006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결의가 채택됐다.

이어서 21세기의 세계를 전망하며, 오랫동안 대립과 긴장이 끊임없이 감돈 아시아에 초점을 맞춰, 향후 지역협력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90나라·지역으로 펼쳐진 SGI평화운동 원점은 마키구치, 도다 회장의 '사제(師弟) 투쟁'에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창가학회와 SGI의 원류로 거슬러 올라가, 이 기회에 이제까지 우리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행동한 역사를 총괄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본디 우리의 평화행동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일관된 '인간주의' 이념에 입각한 것인데, 창가학회 평화운동의 사상적 연원은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 금지선언'과 더 나아가 지금부터 1백년 전 마키구치(牧口) 초대 회장이 저술한 '인생지리학'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저서의 핵심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다른 나라의 희생을 발판으로 자기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약육강식적인 생존경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국제협조로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면서 자기 나라도 이롭게 하는 '인도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20세기 초두(1903년),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가 활개치던 시대에 마키구치 초대 회장은 "우리는 생명을 세계에 걸고, 세계를 우리 집으로 여기며, 세계 모든 나라를 우리 활동구역으로 삼아야 함을 안다"라며,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모두 서로 고양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을 가리켜 '태평양 거리'에 처마를 잇대고 늘어선 나라 중 한 나라로 평가하며, 한반도와 중국을 향한 정치적, 군사적 팽창을 강화하는 정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 후,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자타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인도적 경쟁 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실현하는 의의도 포함해, 제자인 도다 제2대 회장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대저(大著)가 《창가교육학체계》입니다.

창가학회는 사제 정신의 결정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저서 발간(1930년 11월 18일)으로 창립의 날을 맞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처럼 '국가'보다 '인간'과 '인류'에 기본을 두는 방식은 당시 군국주의와 정면에서 대치하는 것으로, 점차 당국의 탄압도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43년 7월, 두 분은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죄라는 혐의로 체포 당하고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념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고령이던 마키구치 초대 회장은 이듬해 1944년 11월 18일에 옥중에서 돌아가시고, 도다 제2대 회장은 1945년 7월 3일에 출옥하기까지 2년에 이르는 옥중생활로 인해 현저하게 건강을 해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내가 도다 제2대 회장을 스승으로 정하고 창가학회에 입회한 것도 바로 가혹한 옥중생활을 강요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전쟁으로 두 번이나 집을 잃고, 형 네 명이 전쟁에 징집됐으며, 만형은 버마(현 미얀마)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만형이 잠시 귀국했을 때 “전쟁은 미담이 될 수 없다. 일본군은 오만하다. 저래서는 중국 사람들이 가 없다”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런 전쟁 중의 체험과 도다 제2대 회장을 사사(師事)한 일이 내가 평화행동을 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원점이 됐습니다.

도다 제2대 회장은 전쟁이 끝나고, 스승인 마키구치 초대 회장의 유지(遺志)를 품고 창가학회 재건에 온 힘을 기울이는 한편, 아시아의 평화와 민중의 행복을 강하게 원하며 그 길을 여는 것이 일본 청년의 사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세계의 열강도 약소국도 함께 평화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청년에 대한 열렬한 외침은, 앞서 말한 ‘원수폭 금지선언’ 등 놀랄 정도로 시대에 앞선 ‘지구 민족주의’라는 이념으로 결실했습니다.

도다 제2대 회장은 안타깝게도 평생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 바다 저편에는 대륙이 펼쳐져 있다. 세계는 넓다. 고뇌에 허덕이는 민중이 있다. 전쟁에 떠는 어린이도 있다. 그러므로 자네가 세계로 가야 한다. 나를 대신해서!”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스승이 서거하고 2년이 흐른 1960년, 제3대 회장에 취임한 나는 곧바로 세계평화를 향한 행동을 시작해, 10월 2일 돌아가신 스승의 사진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북남미 방문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 첫걸음을 하와이로 정한 것은 진주만 공격이라는 비극의 무대가 된 장소에서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세계 부전(不戰)의 조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결의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탄생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각 도시를 돌고, 뉴욕에서는 유엔본부를 시찰하며 유엔을 기축으로 한 세계평화 구상을 새로이 했습니다.

### 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며 제언 발표

이듬해 1961년에는 홍콩, 실론(현 스리랑카), 인도, 버마(현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전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각지에서 기원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깊이 사색했습니다.

석존이 깨달음을 열었다고 전해지는 인도 부다가야에 들렀을 때에는 '전쟁이 없는 세계를 구축하려면 동양을 비롯해 세계의 사상과 철학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1962년에 '문명 간 대화'와 '종교 간 대화'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 동양철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또 1963년에 탄생한 민주음악협회도 타이를 방문했을 때, 설립구상이 확실해졌습니다. 평화의 초석은 민중 사이의 상호이해에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예술이나 문화교류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 냉전시대부터 분단된 세계를 잇는 인간주의 '대화'에 철저히 도전

이 아시아 각국 방문으로 실감한 것은 동서냉전에 따른 대립구조가 아시아에서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65년 2월, 미군의 북베트남 대규모 폭격으로 베트남 전쟁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전쟁은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되기 전 그곳에서 내가 평생의 사업으로 삼아 온 소설 《인간혁명》 집필을 개시한 지 2개월 후에 발생했습니다.

“전쟁만큼 잔혹한 것은 없다. 전쟁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소설 서두에서 경종을 울린 전쟁의 비

극이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반복되고 말았다는 점에 강한 분개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투가 더욱 격렬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직접대결이라는 사태마저 우려할 만큼 긴장이 고조되는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1966년 11월에 즉시정전(即時停戰)과 관계국 평화회의 개최를 호소하는 제언을 발표하고, 1967년 8월에는 북베트남 폭격정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제적인 고립상태를 해소하는 길이, 아시아의 안정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에 입각해, 1968년 9월 8일에 '중일국교정상화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풍조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격심한 비난의 폭풍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세계 인구의 약 2할을 보유한 중국에 유엔의 의석도 인정하지 않고, 이웃 나라인 일본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확실히 이상하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내 가슴에는 "중국은 향후 세계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우호가 가장 중요해진다"라는 은사의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 중국, 소련, 미국의 긴장 완화에 진력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분단화가 진행되는 세계에 우정의 다리를 놓고자, 각국 지도자나 식자와 대화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에 유럽 통합 운동의 선구자인 쿠덴호프 칼레르기 백작과 총 10여 시간 태평양 문명에 대한 전망 등을 대화했고, 이어서 20세기 최고봉의 역사가인 토인비 박사와 세계 통합화를 향한 길 등 다각도에 걸친 주제를 놓고 2년(1972년과 1973년)에 걸쳐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토인비 박사는 내게 유언을 남기듯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결속시키기 위해 젊은 당신이 이런 대화를 더욱 넓혀 주십시오."

이래 오늘까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세계 여러 식자들과 종교와 민족,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폭넓은 대화를 추진, 43권의 대담집을 발간했습니다.

더욱이 1973년 1월에는 닉슨 미국 대통령 앞으로 베트남 전쟁 종결을 호소하는 편지를 키신저 씨(당시 대통령 특별보좌관)를 통해 보냈습니다.

또 같은 해, 이어서 대통령에게 미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정리한 제언을 보냈습니다. 그 제언에서 건국 이래 키워온 빛나는 정신유산에 경의를 표하며 “미국이 그 좋은 특질을 살려 평화와 인권과 공존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바뀔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내가 후일 미국에 평화연구기관인 보스턴21세기센터를 창설(1993년 9월)하고 미국 소카대학교를 설립(2001년 5월)한 이유 중 하나도 그러한 연래(年來)의 신념에서 유래합니다.

1974년부터 1975년까지는 중국, 소련, 미국을 연이어 방문해 각국 정상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민간인 처지에서 긴장 완화를 향한 길을 모색했습니다. 미소 대립에 더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소가 대립하는, 이른바 세계를 3분화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1974년 5월 첫 방중 때, 베이징 사람들이 만든 방공호를 견학하고 중국 사람들이 소련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본 나는, 같은 해 9월에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하고 코시긴 총리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은 소련의 태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소련은 중국을 공격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자 코시긴 총리는 “소련은 중국을 공격할 생각도, 고립시킬 생각도 없습니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같은 해 12월, 이 메시지를 갖고 다시 중국을 방문,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만나 중일 양국이 함께 손을 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우 총리에게 “중국은 절대로 초대국(超大國)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앞서 코시긴 총리가 한 말과 아울러 중소 화해가 멀지 않아 실현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실 역사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1975년 1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눈발이 흩날리는 워싱턴에서 키신저 국무장관과 회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우 총리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바라고 있다고 전하자 “찬성입니다. 체결하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 만난 오히라 마사요시 前 총리(당시 재무장관)에게 키신저 씨의 말을 전하고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호소하자 오히라 씨는 “우호 조약은 반드시 체결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니다. 그 3년 후(1978년 8월),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제3차 방중 때(1975년 4월)는 베이징에서 덩샤오핑 부총리와 회견했고, 망명 중인 시아누크 국왕과 만나 캄보디아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SGI는, 내가 이러한 대화를 통해 평화 건설에 도전하는 와중에 1975년 1월26일,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광에서 발족했습니다. 51나라 대표가 모여 '민중에 의한 일대 평화세력' 구축을 목표로 출발한 그날 이후, 민중의 연대는 지금 1백90나라로 넓혀졌습니다.

이 SGI 발족을 전후로 나는 교육교류, 특히 차대의 리더를 육성하는 대학 간의 교류 추진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찾아 의견을 교환하거나 학생과 간담을 하는 한때를 보내며 교육교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마키구치·도다 두 분 회장의 구상을 계승하여 1968년에 소카학원을, 1971년에는 소카대학교를 개교해 세계 교육자와 손을 잡고 평화에 공헌하는 학부를 건설하고 싶다는, 창립자로서 결심한 일념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방중을 앞둔 1974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 A)에서 첫 대학 강연을 했고, 이어서 이듬해인 1975년 5월에는 모스크바대학교에서 '동서 문화교류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민족, 체제, 이데올로기의 벽을 뛰어넘어,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민중이라는 저류의 교류, 즉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잇는 '정신의 실�크로드'가 요즘처럼 요청되는 시대는 없다." 그 강연에서 발표한 내용은 지금도 변함없이 내 평화 행동의 신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대학교에서 받은 명예박사 학위 이래, 지금까지 세계 대학·학술기관에서 받은 명예 학술칭호는 2백2개를 헤아립니다.

이 사실은 내 개인보다 SGI 전체의 영예이며 각국 영지의 전당인 대학이 평화와 인간주의를 희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내가 연 이 길이 모스크바대학교에서 호소한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잇는 '정신의 실�크로드'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 아시아의 영속적인 평화를 지향해 '중일우호 구축을 위한 10개년'을 실시하자

### 각국 정상과 신뢰를 쌓는 대화에 전력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각국 리더나 식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더욱 전력으로 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영속적인 평화 구축을 목표로 중국의 장쩌민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 한국의 이수성 前 총리와 신현확 前 총리를 비롯해 필리핀(아키노 대통령, 라모스 대통령), 인도네시아(와히드 前 대통령), 말레이시아(아즐란샤 국왕, 마하티르 총리), 싱가포르(나산 대통령, 리관유 총리) 등, 제2차 세계대전 전에 군국주의 일본이 할퀴고 지나간 상처로 현재도 복잡한 반일감정을 품고 있는 나라들의 정상과 진지하게 과거의 역사를 응시하고 희망 찬 미래를 전망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푸미폰 국왕, 아난 前 총리), 몽골(바가반디 대통령, 영흐바야르 대통령), 네팔(비렌드라 국왕), 인도(나라야난 대통령, 벤카타라만 대통령, 라지브 간디 총리, 구주라르 총리) 등, 그 밖의 아시아 여러 나라의 리더들과 대화를 통해 신뢰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게다가 1983년을 시작으로 매년 'SGI의 날' 기념제언을 통해 유엔 강화와 지구적 문제군의 해결을 위한 제언을 했습니다. 그 제언 속에서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에 초점을 맞춰 제언을 거듭했습니다.

이 중, 남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한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한국과 북한의 상호불가침·부전서약합의'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국간 회의 개최'라는 모든 제언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대의 진전 속에서 실현을 보았습니다.

또 근년에는 '아시아에서 공통 역사 인식의 토대를 만드는 공동연구 추진'이나 '국교정상화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 중일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을 제언 속에서 호소하며 아시아 각국 정상이나 식자와 대화를 통해 그 실현을 향한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중일정상회담에 이어 한일정상회담이 열려 최근 수 년, 정치적인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일 관계와 한일 관계가 개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한국의 반기문(前 외교통상부 장관) 씨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셨습니다.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반기문 사무총장의 리더십 아래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 건설이 힘차게 전진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또 올해는 일본과 한국에게 의의 깊게도 '통신사(通信使) 4백 주년'에 해당합니다.

최근 양국은 각각의 도시 사이에 청소년을 상호 파견하여 교류확대를 도모하는 '한일상호통신사' 사업(가칭)을 전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와 함께 한중일의 젊은 세대가 깊은 우정을 쌓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일 공동기자회견'은 실로 8년 만에 발표한 공동문서이며, 향후의 양국 관계에서 원칙이 될 중요한 항목을 담고 있는데, 특히 내가 착안한 것은 다음의 문장입니다.

“아시아와 세계평화, 안정과 발전에 대해 함께 건설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양국과 양국 관계에 부여된 엄숙한 책임이라는 인식에 일치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이 바로, 30여 년 전(1974년 12월) 저우언라이 총리를 뵈었을 때에 깊이 일치한 중일의 미래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중일 국교정상화' 35주년의 가절이기도 하며 이 흐름을 역류시키는 일 없이 각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동아시아에 평화와 공존의 축이 되는 반석 같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할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되는 내년 2008년부터 10년간을 '21세기 중일 우호 구축을 위한 10개년'으로 해, 1년마다 중점 테마를 정해 한층 더 양국의 관계 강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 외교관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앞서 말한 공동기자회견을 보면 2007년에는 “중일 문화스포츠교류의 해를 통해 양 국민, 특히 청소년 교류를 비약적으로 전개해 양 국민 사이에 우호 감정을 증진한다”는 항목에 더해, “에너지, 환경보호, 금융, 정보통신기술,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분야를 중점으로 호혜협력을 강화한다”라고

강조돼 있습니다.

이러한 '중일 문화스포츠교류의 해'에 이어, 가령 '중일 에너지협력의 해' '중일 환경보호협력의 해' 등을 매년 각 분야가 상호 협력해 확대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우호구축을 위한 10개년의 방안으로 '중일 외교관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어떨지 검토했으면 합니다.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와 독일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은혜와 원한을 극복하고 유럽연합(EU)의 통합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양국에는 외교관을 상대국 외무부에 상호 파견하는 제도가 정착하여 불필요한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 역주: 의심이 생기면 귀신이 생긴다는 뜻으로, 의심으로 인한 망상 또는 선입견으로 인한 판단 착오를 비유한 말)를 제거하는 등, 외교관계의 긴밀화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과 외교관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향후는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도 상호교류의 연대를 넓히며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환경 만들기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 필적하는 21세기 약진국인 인도에 한 마디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7월, 러시아에서 열린 서밋 마지막 날에 신흥 5나라(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를 포함한 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G8(주요 8나라) 정상이 정리한 에너지 안전보장 등 세 가지 특별문서 내용을 신흥국 정상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듯이, 이러한 신흥국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정상회담의 방향성을 제창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인도와 일본의 관계도 지난달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싱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일본 전략적 글로벌·파트너십'을 향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며 인도·일본 문화협정체결 5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의 '인도·일본 교류의 해'가 크게 성공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를 골라 미국 소카대학교가 중심이 돼 미국, 중국, 인도, 일본의 4나라 학식자를 초청해 '21세기 글로벌·파트너십의 심화와 확대'를 주제로 국제회의 등을 열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국 소카대학교에 소속하는 '환태평양 평화문화연구센터'에는 설립 이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활동의 기둥으로 해 온 실적도 있어 지금까지 해 온 연구의 축적을 살리면서 뜻 깊은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부전(不戰)의 조류'를 민중의 손으로!**

끝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해 두고 싶습니다.

첫째는 '동아시아환경개발기구' 창설입니다.

2005년 12월,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한 것에 이어서, 올해 1월에는 필리핀에서 제2회 '동아시아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 서밋과 이에 앞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3국(한중일)'의 정상회의를 통한 지역 간 대화로 신뢰양성과 관계강화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산적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과 같은 지역통합이 실현되기에는 아직 그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특정분야에서 파일럿 모델이 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미래의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 지역 나라들의 동기(動機)를 유지하는 데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과제인 환경·에너지분야에 특화된 지역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02년 이후, 매년 개최한 'ASEAN +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지역협력을 요청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성비 등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형성된 지역적 대처를 '동아시아환경개발기구' 산하에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추진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의 공동체 건설을 짊어질 인재 육성을**

둘째는 '동아시아평화대학원' 설치입니다. 유럽에서, 각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견인력이 돼 활약하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중심 거점이 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바로 창설된 '유럽대학원대학'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반 세기 넘게 국가라는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 EU를 담당하는 '유럽인'을 기르는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미래의 공동체 건설을 주시하여 지금 시기부터 인재 만들기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설되는 날에는 교과과정을 지역적인 내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본부가 있는 유엔대학 등과도 연대하며 유엔을 축으로 한 글로벌-거버넌스(지구사회 운영)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상 중일 관계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영속적인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아에 한하지 않고 21세기의 지구평화를 전망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부전(不戰)의 조류를 만들어내는 '자각한 민중의 연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 유엔의 안와를 초두리 사무차장과 만났습니다. 회견 자리에서 사무차장이 말한 "민중이 일어서야 이 세계를 더 좋은 인간의 세계로 변혁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 연래의 신념과 깊이 공명합니다.

SGI가 세계 1백90나라에서 확대하고 있는 '인간주의' 운동의 주안점은 민중의 힘으로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모든 사람의 평화와 행복을 획득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도 이 금지와 확신을 가슴에 품고, 세계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스크럼을 짜고, 21세기 세계에 '평화의 문화'를 넓혀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로 인간 존엄을 함께 빛내는 '대화의 문명' 건설을 향해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 참고문헌

1. 《핵 우산에 덮인 세계》 히사노 오사무 편저, 헤이본사 출판.

2. 《지구평화로 가는 탐구》 우시오출판사 출판.
3. 《아인슈타인 평화의 편지》 O. 네이션-H. 노텐 편저, 가네코 도시오 옮김, 미스즈쇼보 출판.
4. 《직업으로서의 정치》 M. 베버 저, 와키 게이헤이 옮김, 이와나미서점 출판.
5. 《인간의 선택》 노먼커즌스 저, 마쓰다 센 옮김, 가도카와서점 출판.
6. 《케인스 전집 제9권》 J.M. 케인스 저, 미야자키 기이치 옮김, 도요케이자이신포사 출판.
7.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M. 베버 저, 오쓰카히사오 옮김, 이와나미서점 출판.
8. 《수상록 제3권》 몽테뉴 저, 하라 지로 옮김, 이와나미서점 출판.
9. 《자본주의에 덕은 있는가》 앙드레 콩트-스퐁빌 저, 고스다 겐-C. 칸탄 옮김, 기노쿠니야서점 출판.
10. 《저항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K. 크리파라니 편저, 고가 가쓰로 옮김, 아사히신문사 출판.
11. 《현재와 미래》 C. 융 저, 마쓰시로 요이치 옮김, 헤이본사 출판.
12.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1권》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저, 제3문명사 출판.